

미쓰비시(三菱)상사, 중국에 최초로 본격적인 투자펀드 설립

세계 최대 종합상사인 일본의 미쓰비시(三菱)상사는 중국의 대형 투자회사인 「科瑞集團」과 합작투자기업을 설립, 최초의 본격적인 투자펀드를 출범시켜 기술력과 브랜드력이 있는 중견기업들의 중국진출을 지원할 예정

□ 기술력과 브랜드력이 있는 중견기업들이 투자대상

- 일본 미쓰비시 상사는 중국의 대형 투자회사인 「科瑞集團」과 합작투자기업을 설립, 일본기업의 중국진출을 지원하는 투자펀드를 출범시키게 됨.
- 지원대상은 기술력과 브랜드력이 있는 기업중 단독으로는 중국진출이나 중국에서의 사업전개가 어려운 중견기업이며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이나 제휴중개를 통하여 기업가치를 높여, 상장이나 일본과 중국의 유력기업에 주식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최초의 본격적인 투자펀드 설립

- 일본기업이 중국에서의 사업전개를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펀드 설립은 이번이 처음

- 금년 7월 홍콩에 미쓰비시 상사와 科瑞集團 양측이 절반씩 출자한 합작회사「엠씨크리트펀드메니지먼트」를 설립, 8월에나 양사 합쳐 50억엔씩 출자하여 100억엔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할 예정
- 뛰어난 기술과 서비스, 브랜드를 가진 일본기업들의 중국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①중국진출로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 ②일본기업이 중국에 설립하는 합작회사, ③일본기업의 전략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중국기업에 투자
- 펀드의 기간은 통상 5년이며, 수년동안 3~4건씩 투자하여 10%~20%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투자대상기업으로서 새로운 성장분야 관련 기업들을 선별

- 투자대상기업은 앞으로 선정할 예정이나 에너지절약기술이나 수처리, 축전지 등 환경에너지 분야나 외식/서비스업,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실버비즈니스 등을 상정하고 있음. 미쓰비시 상사는 투자수익 외에도 투자대상기업과의 상거래 등을 통한 비즈니스 확대도 겨냥하고 있음.
- 중국의 科瑞集團은 1992년 발족된 기업으로서 제조업이나 광업, 금융/부동산 등 분야에 폭넓게 투자하고 있는 대형의 민영투자기업임.
- 동사는 현재 중국민생은행 등의 창업에 관여하고 있는 외에, 일본의 유명 골프용품업체인 혼마골프를 산하에 거느리고 있는 중국투자자집단에 속해있는 기업들중 하나임.
- 그런가 하면 일본 미쓰비시상사는 세계 최대 종합상사로서 세계 상위 500개기업중 146위에 랭크되고 있으며 동사「중기경영계획

2012」을 통하여 향후 3년내에 약 250억달러~300억달러를 투입, 중국, 인도, 브라질을 기업 전체의 전략지역으로 자립매김할 방침

- 일/중합작투자펀드 설립과 관련하여, 일본의 증권일보는 ‘科瑞集團과 미쓰비시 상사가 각각 중국과 일본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금을 제공받는 기업들에게 자원의 조정, 자본의 운영, 전략적 기획 등의 면에서 고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홍콩이나 중국 대륙에 있는 증권시장에서의 상장을 지원할 것’ 이라고 전하고 있음.

□ 일/중기업간 전략적 제휴에 새로운 국면 마련

- 이번 일/중합작투자펀드 설립은 일/중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됨을 의미함. 더욱이 새로운 성장분야를 대상으로 기술력과 브랜드력 그리고 자금력을 결합시킨다는 점에서 가히 전략적 제휴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으며 국내 관련 기업들로서는 결코 방관만을 할 수는 없음.

< 참고자료 >

日本經濟新聞(2011.7.12)

人民網 日本語版 홈페이지(2011.7/12)